

갈라디아서 ①

갈라디아서 1장 1-10절

은혜, 그리고 복음, 갈라디아서

1. 왜 갈라디아서?

1.1. 고등학생 시절

<갈라디아서 2장 20절>

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

1.2.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갈망 : 나는 과연 은혜 안에서 자유한가?

2. 갈라디아서 소개

2.1.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(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)

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

사도 바울 : 길리기아 다소 출신 --> 수사학을 배웠고,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출신이며, 학문의 깊이가 있었음(가말리엘의 문하생)

→ 고대 그리스-로마 서신 양식을 따른다.

() - (/) - 본론 - 끝 인사(맺음말)

→ 인사말의 중요성 : 주제와 서신서를 쓴 주요 메시지를 담고 있음.

② 갈라디아서의 인사말(갈1:1-5)

- 비교적 긴 인사말에 해당함

- ‘감사하노라’와 같이 수신자에 대한 감사인사에 대한 문구가 생략
☞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
-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변호를 위해 갈라디아서를 작성
☞ 복음과 사도직은 ()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

③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 1. 사도직의 기원

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

☞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

→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

☞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

→ 사도직을 예수님과 부활로 연결

→ 사도직의 근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임을 강조

→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

→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 :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

④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 2. 복음의 내용

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

⇒ 은혜와 평강

-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
- 복음에 담긴 핵심 내용(스탠리. E. 포터, 바울서신연구)

⇒ 은혜(χάρις)

-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값 없는 호의
- 무조건적인 사랑, 구원의 은혜

⇒ 평강(εἰρήνη)

- 은혜 없이 평강이 올 수 없음
-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음

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

- 은혜와 평강의 내용

⇒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

- 건지다(ἐξαίρέωμαι) : 영역의 이동
- 골로새서 1장 13절

☺ 생각해볼 점

→ 인사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? ()와 ()

→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통로를 알려주는 갈라디아서

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

→ 이상하게 여긴다(Θαυμάζω) :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에 감탄하다.

⇒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(Andreas J. Kostenberger)

“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다.”

†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 :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

⇒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갈라디아 교회

⇒ ‘이신칭의’와 관련된 교리적 시각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

⇒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

3. 갈라디아서 전달 시기논쟁

3.1 북갈라디아설

→ 2세기 이후 견지된 주장

→ 켈트 족의 특징과 닮은 갈라디아 교인(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)

→ 갈라디아서 2장 11-21절 책망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이후에 있었던 일

→ 2차 전도여행 시기 복음 전달

3차 전도여행 이후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 집필(AD55~58년 사이)

➤ 반대 주장

- 성경의 기록에 북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기록이 없음
(고려신학대학원, 길성남 교수)
- 사도행전은 남갈라디아지역만을 언급하고 있음
- 사도행전 16장 6절의 문법적인 설명(스탠리 E. 포터, 길성남 교수)

3.2 남갈라디아설

- 18세기 중엽 지리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(Wilham Ramsay)에 의해 주장됨
- 1차 선교여행 시 로마의 속주였던 갈라디아 지역
- 바나바의 행적(갈2:1;9;13)
-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 언급이 없음
- 1차 선교여행 이후 48~49년경 집필

3.3 정리 및 견해

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(Andreas J. Kostenberger)

“두 이론은 나름대로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. 둘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입증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. 증거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갈라디아설이 보다 유력하다.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북갈라디아 도시를 방문했다는 성경 증거가 없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남갈라디아에 교회들을 세웠다고 기록하는 점이다.”

4. 갈라디아서의 논쟁, 새관점주의

- 갈라디아서 2장 11-21절 사이의 칭의론 논쟁
- 칭의를 구원론에서 교회론으로

→ 현재적 칭의를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 미래의 칭의가 결정된다는 주장

→ 개혁주의 전통 : 의롭다는 법적인 선언, 미래에 일어날 최종적인 심판이 현재에 침투하여 의로워진 단회적인 법적 선언(미래적 칭의는 없음).
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,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됨(전가교리).

→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33문답

문 : “의롭다 하심(칭의)이란 무엇입니까?”

답 :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 주시는 것인데,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.“

5. 적용점

① 복음의 내용 1.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.

<로마서 3장 25-26절>

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

② 복음의 내용 2.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셨다.

<에베소서 1장 4~5절>

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

③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 드려야 하는 존재이다.

<갈라디아서 1장 5절>

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